

# 曹溪山 仙巖寺의 水景觀에서 나타나는 外來的 形式에 관한 研究

하재호 ·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exotic formation appearing in the Waterscape of the Sunam Temple at Mt. Chokye

Ha, Jae-Ho · Hong, Kwang-Py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waterscape of the Sunam Temple on Mt. Chokye over which controversies had been actively raised, especially of its Japanese impacts, comparing the phenomena arising from it with those of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temples. And then the identity of the Sunam Temple was clarified in itself. It is concentrated on what exotic formation are found in waterscapes of the Sunam Temple and how they can be proved via what factors.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wo curved ponds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Iljumun gate have a specific features not visible in any other Korean traditional temples, serving as an object of interest. Such ponds with curved form in the Sunam Temple had an affinity to those of stroll-style garden in Kyoto area.

2. The winding waterway along with curved ponds in the west of the Iljumun gate was introduced into the Sunam Temple. Therby, it was an exceptional phenoma hardly found in the traditional temples of Korea. This study was a typical one, as found in the stroll Japanese temples. Especially, the winding waterway found in both the Kinkakuji Temple and the Ginkakuji Temple designated as object temples of comparison in the present study.

## I. 序論

全羅南道 昇州郡 曹溪山 자락에 자리잡은 仙巖寺는 統一新羅末에 創建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湖南의 대표적인 寺刹로 자리 매김해온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사찰로서의 경관적 정체성<sup>1)</sup>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日帝強占期에 일인들에 의하여 朝鮮佛敎 30本山 가운데에서 全南의 4大本寺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일본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까닭에 일본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조계종단과 태고종단의 사찰 소유권 분쟁으로 말미암아<sup>2)</sup>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소홀했던 탓으로 인하여 지금은 과거의 전통사찰이 유지해온 경관적 정체성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렇듯 仙巖寺는 內·外的으로 강한 변화의 요구를 받은 寺刹로서 一般的으로는 千年古來의 寺刹, 造景이 잘 된 寺刹, 日本色이 짙은 寺刹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仙巖寺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빠지지 않는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찰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찰경관과는 다른 외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경관의 경우에는 한국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경관형식과는 차별화되는 지당과 수로형식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現象을 仙巖寺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겠으나 仙巖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水景觀은 지나칠 정도로 異質의이어서 仙巖寺의 水景觀 가운데에서도 외래적 형식으로 비쳐지고 있는 지당과 수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sup>3)</sup>

이렇듯 仙巖寺의 수경관에 대한 論難의 정도나 그것에 대한 전통성 규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仙巖寺의 수경관에 관한 造景學分野의 研究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었으며,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경관적 정체성을 밝힌 研究는 미약한 실정이어서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研究가 요구되고 있다. 선암사의 수경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우선 仙巖寺의 水景觀 全般에 관해서 獨立的으로 이루어진 研究는 현재로서는 全無한 立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韓國傳統寺刹의 水景觀에 대한 調查對象地중의 하나로 선암사를 다룬 것으로 洪의 5人(1995)의 研究를 들 수가 있다. 洪의 5人은 현지답사를 통해서 선암사의 水景觀에 대한 形式(靜的 水景觀 形式, 動的 水景觀 形式, 水景觀 形成要素), 內容(水의 視覺·聽覺의 效果, 蓮池 및 影池의 役割과 象徵의 意味), 造成技法(排水處理技法, 池塘造成技法, 引水技法) 등을 分析하였는데, 연구결과로 仙巖寺에는 靜的 水景觀形式인 池塘과 水槽 그리고 動的 水景觀形式인 瀑布, 水路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背景 및 必要性을 토대로 日本의 影響說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 온

1) 佛敎의 道場인 寺刹은 印度에서부터 발생하여 中國을 거쳐 우리 나라에 傳來되는 過程에서 형식상의 多大한 變化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佛敎를 受容하였던 각 시대와 장소의 文化的 價値體系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金龍基, 洪光杓, 李相潤(1993), "新羅寺刹의 立地와 空間構成의 形式的 特性에 관한 研究", 『韓國庭苑學會誌』, 11(1) : 1) 즉, 韓國의 寺刹은 導入過程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外來形式要素가 우리의 독특한 文化的 特質 속에 溶解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固有素로 變化·定着되어 가는 現象을 보이게 되며 結果의으로는 다른 나라의 寺刹과 구별될 수 있는 韓國 固有의 景觀의 正體性을 갖추게 되었다. 선암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관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나 일정시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사찰경관의 틀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2) 현재 선암사는 조계종단과 태고종단의 분쟁이 일단락되어 태고종단의 총본산으로서의 사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仙巖寺는 法的 主人이 曹溪宗團이며, 실질적인 주인은 太古宗團인 이충 소속의 寺刹로, 더욱 기묘한 사실은 현재의 재산관리인이 어느 宗團도 아니고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仙巖寺가 曹溪·太古 양 종단의 소유권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까닭인데, 그 결과 최종선고가 날때까지는 관할지방관인 순천시가 仙巖寺가 임시관리를 맡고 있다. (金奎烈(1997), "最後의 最高-仙巖寺", 『理想建築』64 : 117-118)

3) 이것은 선암사가 일제강점기에 변화된 정도가 크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仙巖寺의 水景觀 가운데에서도 외래적형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수경관형식을 집중적으로 調査·分析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現象을 韓國傳統寺刹 및 日本傳統寺刹의 수경관형식과 比較·考察함으로써 仙巖寺의 수경관에 대한 景觀性を 밝히는데 그 目的을 두고 進行되었다. 즉, 本 研究에서의 초점은 仙巖寺의 水景觀에서 발견되는 例外的 現象<sup>4)</sup>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程에 관련된 모든 資料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물리적 측면에서의 변화상은 대각국사 의천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암사 중창 건도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近代에 이루어진 선암사의 景觀變化 狀態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直接 面談을 통해서 얻어진 結果를 토대로 分析하였다.

③ 現況調査

仙巖寺 水景觀의 現況은 池塘, 瀑布, 水路, 水槽, 泉, 溪流 등 모든 유형의 水景觀 要素들을 대상으로 調査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외래적 형식으로 보여지는 水景觀形式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調査 및 分析을 실시하였다.

④ 韓國傳統寺刹의 水景觀形式 研究

文獻考察과 現地踏査를 통해 한국전통사찰에서 발견되는 水景觀의 傳統의 形式을 研究하여 比較研究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⑤ 日本傳統寺刹의 水景觀形式 研究

仙巖寺의 水景觀이 일본전통사찰의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日本 京都地方의 지명도가 높은 7개 寺刹을 중심으로 現地調査를 실시한 후,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와 기타 現地調査 資料를 중심으로 寺刹景觀을 分析하였으며, 그 結果를 통해 日本寺刹 水景觀의 傳統性을 찾아 比較研究의 基礎資料로 활용하였다.

## II. 研究內容 및 方法

### 1. 內容 및 過程

本 研究는 독특한 景觀性を 지니고 있는 仙巖寺의 水景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래적인 現象을 밝히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本 研究에서 進行한 研究 內容 및 過程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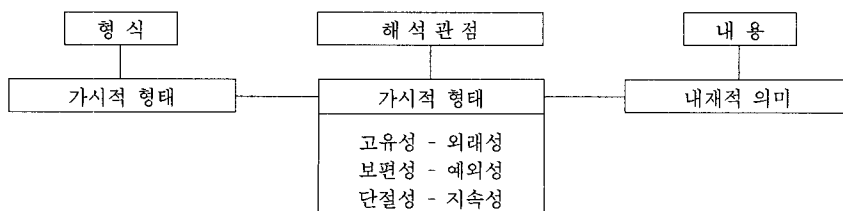
① 先行研究의 考察

本 研究의 主題와 관련된 先行研究들의 內容과 研究方法 및 研究結果를 考察하였다. 考察의 範圍는 造景學 分野에서 이루어진 研究로 限定하였다.<sup>5)</sup>

② 仙巖寺의 歷史性

古刹 仙巖寺의 歷史性 考察은 創建과 變遷過

4) 洪은 그의 博士學位 論文에서 '意味解釋의 概念的 틀'을 제시하면서 例外性이 內在의 意味를 解釋하는데 있어 중요한 準據의 틀로 作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可視의 形態와 內在의 意味를 解釋하기 위한 基準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洪光杓(1991), 『新羅寺刹의 空間形式變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31)



5) 선행연구 결과 선암사의 수경관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⑥ 外來의 形式의 發見과 解釋

比較研究를 통해 仙巖寺에서 나타나는 외래적 형식, 다시 말해서 韓國의 傳統寺刹에서 발견되는 普遍的 現象과 비교되는 例外的 現象들을 밝혀 내며, 이러한 例外的 現象이 日帝強占期에 日帝의 宗教侵略에 의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 2. 調査方法

本 研究에서는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調査를 위해 선암사에 대하여 1997년 7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5회의 現地踏査를 하였으며, 研究過程에서 仙巖寺가 日本寺刹의 水景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日本寺刹 특히 京都地方에 소재한 寺刹에 대한 資料의 수집을 위해 1997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의 現地踏査를 실시하였다.

本 研究에서 사용한 仙巖寺의 平面圖는 文化財 管理局에서 작성한 平面圖를 토대로 불확실한 부분을 實測·補完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한편,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調査는 三印塘 周邊을 포함한 仙巖寺 境內 全域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調査는 水景觀 形式에 따른 池塘, 瀑布, 水路, 水槽, 泉과 溪流 등으로 區分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뚜렷하게 외래적으로 보여지는 一柱門 西쪽의 曲水路와 曲線形 池는 평판과 트랜시 측량기를 사용해 직접 實測調査하였다.<sup>6)</sup>

## 3. 分析方法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調査結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過程을 통해서 分析되어졌다.

우선 仙巖寺에 나타나는 水景觀을 池塘, 瀑

布, 水路, 水槽, 溪流 등과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여 調査된 結果를 分析基準에 따라 分析하였다.

다음으로는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分析을 통해 얻어진 結果를 가지고 韓國傳統寺刹의 보편적인 水景觀技法들과의 比較分析을 실시하여 韓國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普遍的 現象에 비해 仙巖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例外的 現象을 導出하였다.

마지막으로 日本傳統寺刹의 水景觀에 대한 研究를 통해 仙巖寺의 수경관중에서 외래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설명할 수 있는 방증자료를 제시하는 段階를 거쳤다.

## Ⅲ. 水景觀形式의 考察

### 1. 水景觀의 類型과 形式

寺刹의 水景觀은 佛敎가 지닌 宗教的 象徵性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傳統寺刹에는 宗教的 意味가 부여된 다양한 水景觀 要素가 導入되어 왔다. 그 예를 보면, 寺刹의 初入인 一柱門 前面에서 나타나고 있는 溪流<sup>7)</sup>는 聖과 俗의 世界를 區分하는 象徵的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寺刹內·外部에 導入되는 影池는 佛敎의 象徵性을 바탕으로 佛, 塔, 山 등을 引景하여 부처님의 세계를 表象하고 있고, 蓮池는 極樂淨土를 具體的으로 보여주는 象徵的 概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代表的인 水景觀 要素는 우리나라 傳統寺刹에서 一般的으로 導入되어 온 것들이며, 그 대부분이 佛敎敎理를 基盤으로 하여 概念化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傳統寺刹에서 水景觀이 적극적으로 導入될 수 있었던 것은 佛敎의 象徵性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

6) 一柱門 주변의 池塘에 대하여 특별히 實測調査를 실시한 까닭은 이 곳의 水景觀 形式이 우리나라 傳統寺刹의 그것과 다른 특이한 形式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 여기에서 溪流는 佛敎의 宇宙觀을 나타내는 수미산의 섬부주를 둘러싸고 있는 향수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傳統寺刹에서는 이 곳에 다리를 놓아 俗의 領域과 聖의 領域을 상호 연결하고 있다. 仙巖寺에는 昇仙橋가 있어 佛敎의 象徵的 意味를 구체화하고 있다.

으로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寺刹의 建物이 거의 木構造인 관계로 화재시 필요한 防火用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微氣候 調節을 위한 手段으로 導入된 것으로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風水地理的인 觀點에서 비보나 埡승의 개념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傳統寺刹의 水景觀 要素는 寺刹이 立地한 地形의 特性에 따라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佛敎傳來 初期에 造營된 都心 平地型 寺刹의 경우에는 주로 面的이면서 靜인 水景觀, 즉, 蓮池나 影池 등이 주로 造成된 반면, 山間 傾斜地에 造營된 寺刹에서는 線的 水景觀을 基礎로 面的 水景觀이나 點的 水景觀이 添加되어 나타나고 있다.<sup>8)</sup> 仙巖寺는 山間 傾斜地에 造營된 寺刹로 溪流와 水路같은 線的 水景觀 要素, 面的 水景觀 要素인 池塘, 그리고 點的 水景觀 要素인 水槽 등 다양한 水景觀 要素가 導入되어 있다.

한편, 현재 仙巖寺에 導入된 水景要素의 位置는 點的 水景要素인 石水槽가 禪院內, 佛祖殿 石壇앞, 說禪堂 西쪽편, 萬歲樓 左右 등 4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線的 水景要素인 水路는 一柱門 西쪽에 위치한 自由曲線形 池와 解憂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瀑布는 一柱門 西쪽에 築造된 石壇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面的 水景要素인 池塘은 三聖閣 前面空間, 說禪堂 西쪽, 一柱門 西쪽, 進入空間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自然形 溪流는 仙巖寺 東쪽 境界部에서 부터 三印塘 사이와 三印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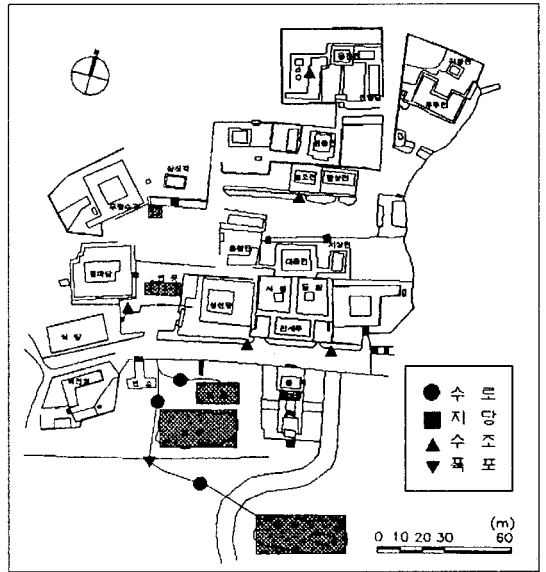


그림 1. 仙巖寺 水景觀 類型 (출처: 필자 작성 도면)

西쪽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仙巖寺에 보관되어 있는 大覺國師의 勅이 仙巖寺를 重創하고 남긴 것으로 推定되는 重創建圖記<sup>9)</sup>의 中央部分에 그려진 重創建圖에는 重創 當時의 仙巖寺의 寺刹景觀이 鳥瞰圖의 形式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그림에는 建物은 물론 池塘의 位置와 形態가 비교적 분명하게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仙巖寺의 옛 水景觀을 解釋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資料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重創建圖

8) 洪光杓의 5人(1995), 『韓國傳統寺刹의 水景觀에 관한 研究』, 『불교학보』32 : 304, 東國大學校 附設 佛敎文化硏究院 附椽說明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 傳統寺刹이 都心平地型으로부터 山地型으로 바뀌게 되면 水景觀造成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水景觀要素가 자연형계류 및 폭포 등 自然要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인공적인 연못 등과 같은 人工의 水景觀要素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意圖的으로 조성되는 副次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연못은 거의 直線的인 形式을 취하게 되며, 특히 水路의 경우에 있어서는 機能的인 排水路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뿐 景觀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한편, 日本의 傳統的인 寺刹에서 나타나는 수경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수경관과 달리 주로 인공적인 연못과 곡선수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연못의 경우 호안을 자유곡선형으로 조성하게 되며, 수로 역시 의도적으로 곡선 수로를 만들어 회유하거나 일정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사의적인 개념을 부여한다.

9) 이 重創建圖記는 세로로 긴 족자에 製作되어 있으며, 重創建圖는 中央部分에 세로로 긴 타원형 구도로 그려져 있고 그림의 위쪽 좌우에 重創建記가 있다. 左右로 나뉘어 적혀있는 重創建記의 사이에는 重創建圖의 가장 위쪽에 자리하는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다. 한편, 이 重創建圖記의 製作時期를 보면, 重創建記의 末尾에 있는 年記에는 高麗 의종 원년(1147)으로 되어 있으나 몇가지 점을 근거로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金幸植(1997), 『曹溪山 仙巖寺의 擇地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大覺國師 重創建圖記를 中心으로-』,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22-32)

에 나와 있는 池塘은 지금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仙巖寺는 重創建圖記가 製作된 이후에 水景觀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重創建圖記가 제작될 당시 仙巖寺에는 說禪堂 옆에 恕圓形의 池塘이 하나 있었으며, 지금의 食堂자리에는 半月池가 있었고 심검당 옆에 또 하나의 恕圓池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一柱門 西쪽에는 2개의 方形池가 나타나고 있으며, 進入過程에서 지금 三印塘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長方形의 池塘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볼 때, 仙巖寺에는 重創建圖記가 제작될 당시에 총 5군데에 池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仙巖寺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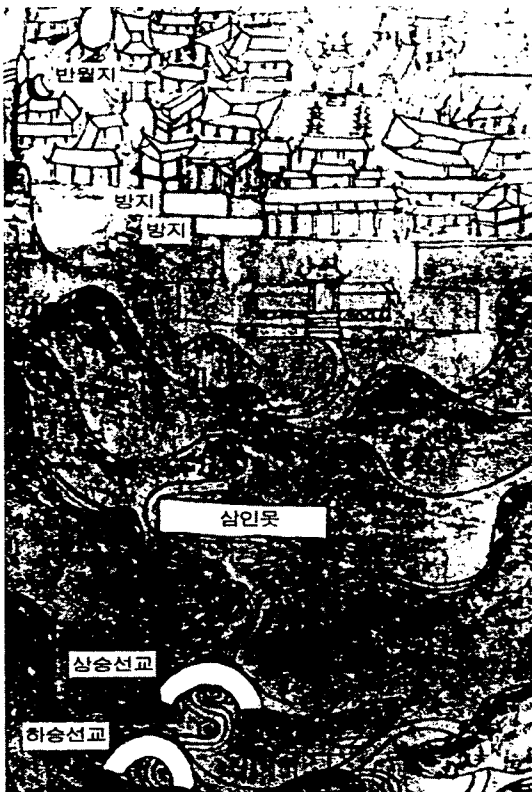


그림 2. 重創建圖記에 나타나는 선암사 水景觀  
(출처: 金奉烈(1997), 전계논문 : 57)

같이 進入路邊의 恕圓池인 三印塘, 一柱門 西쪽의 曲線形 池, 夫餘 定林寺址와 東南里寺址에서 나타나고 있는 方形 蓮池와 유사한 形態로 蓮池의 機能을 가진 說禪堂 西쪽의 雙池, 그리고 三聖閣 앞에 있는 瓦松밑에 있는 蓮池 形態의 方池 등 4군데에서 池塘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仙巖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池塘과 앞에서 언급한 重創建圖記上에 나타나고 있는 池塘을 비교해 보면, 說禪堂 西쪽의 恕圓形池는 2개의 方池로 바뀌었으며, 지금의 食堂자리에 있었던 半月池는 없어져 버렸고, 三聖閣 前面에서 나타나고 있는 方池는 새로 造成되었으며, 一柱門 西쪽에 있었던 2개의 方池는 自然形池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仙巖寺의 水景觀은 時代가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암사의 수경관 요소 가운데에서 一柱門 西쪽에 造成된 曲線形 池와 그 池塘으로 연결되는 曲水路가 우리의 傳統的인 寺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形式을 갖추고 있어 주목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一柱門 西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曲線形 池는 日本의 전통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한 形式과 構造를 갖고 있으며, 더불어 曲水路 역시 日本의 傳統寺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水景觀 要素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仙巖寺의 水景觀이 創建時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러나 仙巖寺가 山地에 經營된 寺刹이고 仙巖寺가 위치한 曹溪山의 水量이 풍부하며, 과거 우리나라의 寺刹이 木造建築 위주로 되어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仙巖寺가 風水地理의 觀點에서 전체의 空間이 構成되었고 그 과정에서 裨補要素로 물을 도입했다는 측면<sup>10)</sup>에서 볼 때 仙巖寺의 水景觀이 다른 寺刹에 비해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10) 上揭論文 : 71-75

그러나 현재 仙巖寺에 보관되어 있는 대각 국사 의천이 제작하였다고 전해지는 仙巖寺 重創建圖記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적어도 重創建圖記가 제작될 당시의 仙巖寺 水景觀과 지금의 水景觀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이 중창건도기상의 水景觀과 지금의 水景觀을 비교해 보면, 水景觀이 造成된 位置와 그것이 지닌 형태에서 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景觀의 形式이 文化的 表現의 結果이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仙巖寺의 水景觀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은 仙巖寺의 水景觀이 우리나라의 典型的인 水景觀 形式의 傳統을 繼承하지 못하고 外來的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 2. 曲線形 池

현재 仙巖寺 一柱門 西쪽 평지부에는 上池와 下池로 볼 수 있는 2개의 曲線形 池가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仙巖寺 重創建圖記에는 이 曲線形 池가 있던 자리에는 원래 上·下로 된 2개의 長方形 池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지금의 이 曲線形 池는 분명한 개조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重創建圖記가 製作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曲線形 池가 우리나라 傳統寺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外來的인 形式의 전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自由曲線의인 形態를 가진 曲線形 池가 日本의 傳統寺刹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仙巖寺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曲線形 池가 日本의 池塘樣式으로부터 影響을 받아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해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연못의 형식 그 자체만을 두고 이것이 일본의 영향

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견 성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으나, 연못의 주변경관과 연못자체의 구조를 볼 때 그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못의 형식과 이것의 형식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京都地方의 대표적 寺刹인 金閣寺, 銀閣寺, 大德寺, 龍安寺, 南禪寺 등 5개 對象地를 踏查하였다. 답사결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5곳 모두에서 仙巖寺의 曲線形 池와 거의 유사한 池塘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文獻을 통해서 考察한 결과 역시 이와 같은 曲線形 池는 日本의 傳統庭園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연못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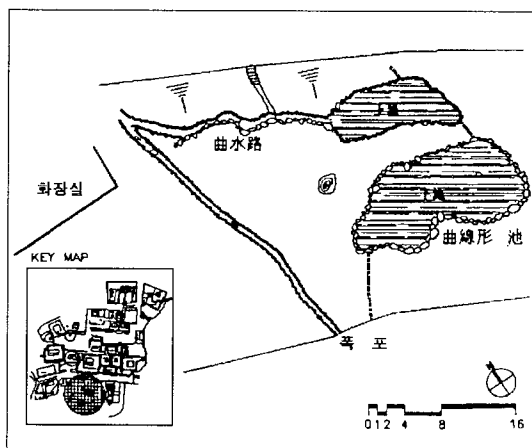


그림 3. 仙巖寺 曲線形 池 平面圖(출처: 필자 실측도)



사진 1. 仙巖寺 曲線池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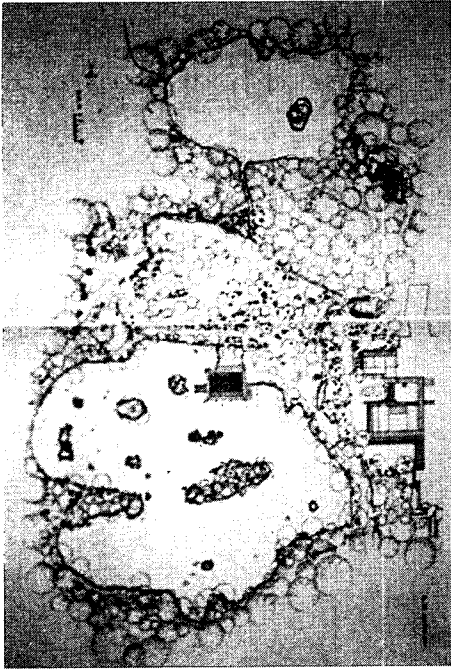


그림 4. 金閣寺 池塘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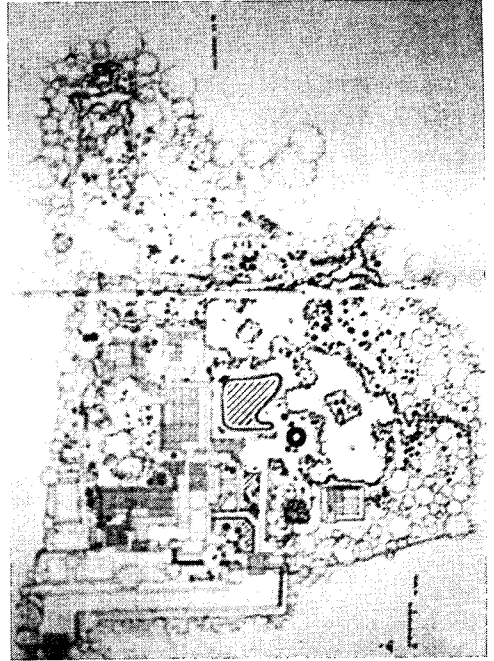


그림 5. 銀閣寺 池塘形態

(출처: Mitchell Bring & Josse Wayemberg(1981), *Japanese Gardens*, McGraw-Hill Book Co.: 34-35, 48-49)

임을 알 수 있었다.<sup>11)</sup>

仙巖寺의 一柱門 西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2개의 曲線形 池 역시 日本의 전통사찰에서 보여지고 있는 연못과 같이 연못주위를 돌면서 玩賞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曲水路로부터 물을 引水하는 構造를 가지고 있다. 즉, 연못 주변과 曲水路를 회유할 수 있는 動線構造를 만들기 위하여 2개의 연못을 上池와 下池로 구분하고 두 연못의 연결 水路와 下池로부터 瀑布에 이르는 水路를 暗渠로 처리하였으며, 上池 西편 石壇에 조성된 階段이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이 池園으로의 접근을 위해 造成되어 있다. 또한 연못주변에 池園을 감상할 수 있는 2m가 넘는 坐禪石이 있다는 점 역시 日本의 廻遊林泉式 庭園樣式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仙巖寺의 曲線形 池가 日本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史實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먼저 日帝強占期 당시의 仙巖寺 信徒數를 살펴보면 전체 信徒中 日本人 信徒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日帝強占期에 仙巖寺에서 主席하였던 스님들 가운데에는 일본유학을 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 역시 仙巖寺의 景觀이 日本式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全南의 本寺中 日本人 信徒數가 많았던 大興寺에도 仙巖寺의 一柱門 西쪽 曲線形 池와 유사한 自由曲線形 池塘인 無染池가 日帝強占期에 造成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1926년 당시 仙巖寺의 日本人 信徒數가 大興寺와 같았다는 측면과 두 寺刹의 地政學的 位置를 감안해 볼 때, 仙巖寺의 曲線形 池가 日本의

11) 日本庭園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연못의 형태는 上古時代에서부터 池泉庭園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形式은 自由曲線形 態를 띠고 있다. 이 연못의 형태가 곧 일본정원의 특성을 한마디로 說明하는 것이 된다. (한국조경학회(1996), 『東洋造景史』, 文運堂: 404-405)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을 가능케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쪽에서 작은 池塘(上池)으로 연결되는 曲水路는 소위 日本庭園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樣式과 유사하여 더욱 더 이 池塘의 形式이 日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12)</sup>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당양식이 직선형을 기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선암사의 曲線形 池가 순수한 우리나라 지당양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유사한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각기 독창적인 造景文化를 이루어 온 한·중·일 삼국의 지당양식을 개괄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中國은 直線과 曲線을 함께 이용한 繪風의 造景을 發展시켰고, 日本은 自由曲線을 導入하여 海岸風景이나 深山溪谷을 縮小한 縮景式景園을 誕生시켰으나, 韓國사람들은 池塘이나 花階 또는 後園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과 다른 直線文化를 創造하였던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은 高麗時代의 池塘이 대부분 方池形態이며, 朝鮮時代에도 高麗時代와 마찬가지로 方池形態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초에 造成된 忠南 外安리의 몇몇 庭園과 아석현에서 나타나는 池塘이 曲線形 池塘의 形態를 보이고 있는 것은 日帝強占期의 日本文化流入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3. 曲水路

仙巖寺에는 一柱門 西쪽에 造成되어 있는 두 개의 曲線形 池로 연결되는 曲水路가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曲水路는 우리나라의 傳統寺刹뿐만 아니라 여타의 造景空間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水景觀 形式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曲線形 池와 더불어 造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곡수로 역시 일본 정원양식의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仙巖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曲水路의 形式 역시 日本의 傳統庭園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日本의 傳統寺刹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 調査對象地로 選定하여 직접 답사한 日本 京都地方의 寺刹에서는 이러한 曲水路의 형식을 예외없이 볼 수 있었다. 특히 金剛寺와 銀閣寺에서는 仙巖寺에 나타나고 있는 曲水路와 매우 유사한 曲水路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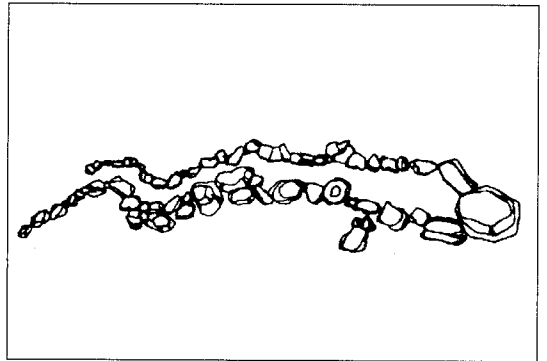


그림 6. 선암사 곡수로 평면도(출처: 필자 실측도)



사진 2 선암사 곡수로 부분사진(출처: 필자 직접 촬영)

12) 일본전통정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遺水는 좁다란 물도랑으로 처음에는 좁고 급류로 흐르다가 못에 가까워지면 넓어져 큰 강처럼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 계곡과 하천,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순환을 의도하고 있다. 이 유수 역시 일본 전통정원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Mitchell Bring & Josse Wayembergb(1981), *Japanese Gardens*, McGraw-Hill Book Co : 413-414)

13) 鄭童晔(1990), 『東洋造景文化史』, 全北大學校 出版部 : 474



사진 3. 金閣寺 曲水路 (출처: 필자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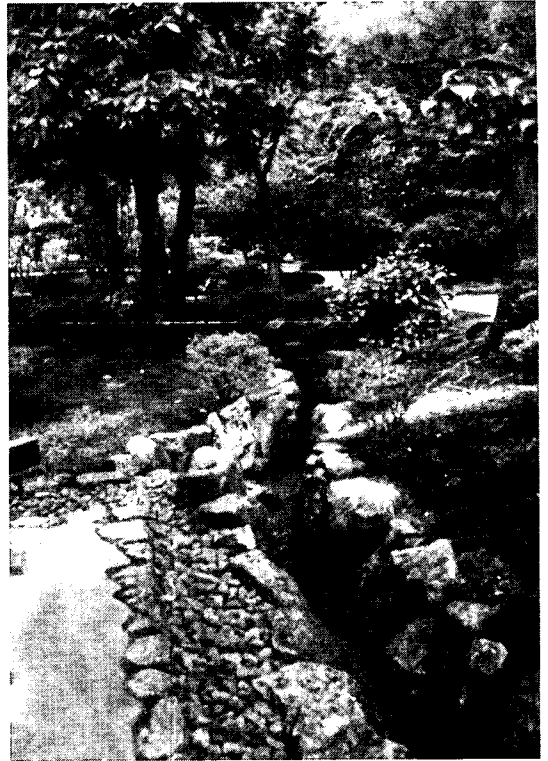


사진 4. 銀閣寺 曲水路 (출처: 필자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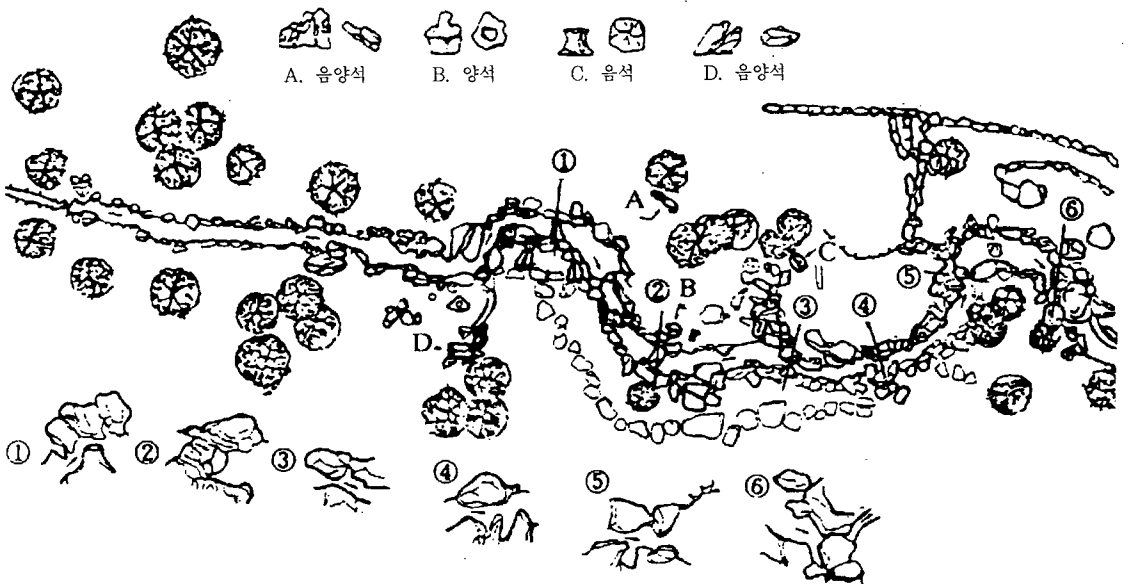


그림 7. 外岩里 松和宅 曲水路 平面圖

(출처: 俞炳林, 黃琪源, 朴鍾和(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附設 環境計劃研究所 : 165 )

도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곡수로가 일본정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仙巖寺에 도입된 曲水路는 自然石을 이용하여 일정한 形態를 유지할 수 있도록 築造하였을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연석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庭園에서 나타나고 있는 曲水路의 축조형식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仙巖寺의 曲水路와 類似한 例인 忠南 아산 外岩里의 松和宅(李道善 家)의 曲水路가 日帝强占期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仙巖寺의 曲水路가 日帝强占期에 축조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仙巖寺에 나타나고 있는 이 曲水路는 전체 길이가 약 23m이며, 폭은 30~50cm이고, 曲水構 中間의 두군데에 5~10cm의 落差와 池塘과 접하는 부분에 60cm 이상의 落差를 두고 물을 入水시킴으로써 聽覺의 效果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 曲水路의 전체 句配는 7.5%로 土砂의 堆積을 防止할 수 있는 0.6%이상의 句配를 유지함과 동시에 물의 流動美와 물소리를 感想하기에 충분한 句配를 확보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曲水路를 築造한 形式인데, 이러한 形式의 水路는 우리나라 傳統寺刹에서는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日本의 影響說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 온 曹溪山 仙巖寺의 水景觀을 總體的으로 調査·分析하여 外來의 形式을 발견하고 그 형식을 韓國傳統寺刹 및 日本傳統寺刹의 그것과 比較함으로써 仙巖寺가 가진 水景觀의 例外的 現象을 밝히는데 그 目的을 두고 진행되었다.

本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一柱門 西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2개

의 曲線形 池는 우리나라의 傳統寺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形態를 지니고 있는 바, 이 曲線形 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外來의인 形式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이 曲線形 池는 그 形態와 構造가 日本의 전통사찰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日本의 연못과 유사하여 日本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曲線形 池가 日本의 전통적인 지당양식을 원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증거는 이 曲線形 池가 日本의 전통정원의 양식과 같이 연못 주변과 曲水路를 회유할 수 있는 動線構造를 만들기 위하여 2개의 연못을 上池와 下池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연못의 연결 水路와 下池로부터 瀑布에 이르는 水路를 暗渠로 처리하였고 上池 西편 石壇에 조성된 階段이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이 池園으로의 접근을 위해 造成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못주변에 池園을 감상할 수 있는 2m가 넘는 坐禪石이 있다는 점 역시 日本의 회유입천식 庭園樣式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와같은 예는 京都地方의 日本 전통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② 仙巖寺 重創建圖記에는 이 池塘의 形態가 方形池로 나타나고 있고 이 重創建圖記가 18세기 후반에 製作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을 보면 이 自由曲線形 池는 日帝强占期에 변형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③ 한편, 仙巖寺의 曲線池가 日本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史實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 먼저 日帝强占期 당시의 仙巖寺 信徒數를 살펴보면 전체 信徒中 日本人 信徒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그리고 日帝强占期에 仙巖寺에서 主席하였던 스님들 가운데 日本유학을 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一柱門 西쪽의 曲線形 池와 함께 仙巖

寺에 導入된 曲水路는 우리나라 傳統寺刹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외래적인 형식임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형식은 日本庭園에서 연못에 引水를 위해 고안한 代表的인 형식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곡수루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 ① 仙巖寺에 도입된 曲水路는 自然石을 이용하여 일정한 形態를 유지할 수 있도록 築造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自然石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庭園에서 나타나고 있는 曲水路의 축조형식과 동일한 것이다.
- ② 仙巖寺의 曲水路와 類似한 例인 嶺南 아산 外岩里의 松和宅(李道善 家)의 曲水路가 日帝強占期에 축조된 까닭에 仙巖寺의 曲水路가 日帝強占期에 축조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仙巖寺의 水景觀에 대한 研究結果를 綜合해 보면 仙巖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경관 가운데 曲線形 池와 曲水路는 日本의 造景樣式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외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結論이 단편적인 것에 대한 分析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깊은 研究를 하여 本 研究結果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本 研究에서 부분적으로밖에는 研究되지 못한 仙巖寺 重創建圖記의 造景學的인 측면에서의 解釋 역시 앞으로의 研究課題로 남겨두고자 한다.

## 인용 문헌

1. 金奉烈(1997), "最後와 最高-仙巖寺", 『理想建築』64, 月刊理想建築社
2. 金龍基, 洪光杓, 李相潤(1993), "新羅寺刹의 立地와 空間構成의 形式的 特性에 관한 研究", 韓國庭苑學會誌 11(1)
3. 金宰植(1997), 『曹溪山 仙巖寺의 擇地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大覺國師 重創建圖記를 中心으로-』,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兪炳林, 黃琪源, 朴鍾和(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附設 環境計劃研究所
5. 鄭 晝(1990), 『東洋造景文化史』, 全北大學校 出版部
6. 洪光杓(1991), 『新羅寺刹의 空間形式變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7. 洪光杓의 5人(1995), "韓國傳統寺刹의 水景觀에 관한 研究", 『불교학보』32,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8. Mitchell Bring & Josse Wayembergb(1981), Japanese Gardens, McGraw-Hill Book Company